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열려



온 이삼헌 씨는 살풀이춤을 통해 고인의 넋을 달랬다.

이경해 열사와 농민운동과 지역운동을 함께 했던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 장재영 장수군수 등도 추모사를 통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모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장수공설운동장 우측에 세워진 '이경해열사 추모비' 제막식을 갖고 고인의 영정에 헌화를 하는 것으로 추모식을 마쳤다.

이경해열사기념사업회는 고인의 1주기인 11일 오후 2시, 전북 장수에서 유족과 한농연 전현직임원 및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제와 추모식,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고인의 묘소에서 묘제를 올렸다.

장수군공설운동장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이 자리를 함께 한 동지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결의로 열사님이 주신 힘으로 감히 열사의 이름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며 "고되고 험난한 길 함께 가는 동지들 앞에 큰 바람 되어 보살펴주시길 바라며 열사의 영정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며 열사를 추도했다.

전북출신으로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소속 소설가인 정도상 씨는 '지상의 모든님, 이경해!' 라는 시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나



산하연합회 소식

전라북도연합회 서울서 '농특산물 명품 큰 장터' 개최



추석을 맞아 전북도 농민들이 생산한 쌀, 사과, 배 등 우수농산물이 전시 판매행사에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임선택)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후원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농·특·축산물 명품 큰 장터' 기념식이 17일 강동구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거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임선택 회장은 "웰빙 시대를 맞아 농도 전북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시급해 큰 장터를 마련했다"며 "더욱 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한편 매년 지속적인 판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경영인출신조합장협의회 워크숍

지난 16일 부터 17일(금)까지 1박 2일간 충주 수안보 수련원에서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협의회 회원 151명중 14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선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의 특별강연과 농협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침묵도모를 위한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는 4년 전인 2000년 3월 한농연 출신 조합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

여 후계농업인 육성업무 및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단체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박홍수 의원은 우리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통해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 및 회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앞으로 한농연의 농협법 개정안의 올바른 입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한농연이 농촌회생을 주도할 때이며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한농연 시군도 중앙집행부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말라 달라'고 당부했다.

성진근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농연 임원과 협의회 회원들의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등 농협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 됐다. 이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은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법 개정 방향' 발표에서 "한농연은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농협법 개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농협법 개정 이외의 각종 농축협 개혁과 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 원유값 13% 인상 합의

한 달 가까이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온 원유가 인상률이 마침내 13%로 최종 결정 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생산자들이 주장해온 원유가 13% 인상안을 유가공업체가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유대인상률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농가들이 요구해온 기준 원유량 회복과 축산업등록제 유예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농림부는 낙농가들이 요구한 유업체 수준의 기준원유량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유업체와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말까지 모두 직결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업등록제도 당초 계획대로 2005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원유가 결정을 위한 진흥회 소위원회 개최 수시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은 생색내기"라며 "기준 원유량을 당장 원상회복하고 축산업등록제도 충분한 농가 지원과 유예기간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내달 4일 부터 22일까지 확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가 지난 14일 제250회 정기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0월 4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업무감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2일까지 19일간,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일정은 농림부 4일, 해수부 7일, 산림청·산림조합 8일, 마사회·유통공사 11일, 농진청·농업기반공사 12일, 경상남도 15일, 농협 18일, 수협 19일 순서다. 또 10월 21일에는 해수부, 22일에는 농림부 종합감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농연**